기독교교육논총 제66집 (2021. 6. 30): 179-208
DOI: 10.17968/jcek.2021..66.006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선교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이은주(한신대학교/겸임교수)
ejlee129@hanmail.net

한글 초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서 지구공동체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포하여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비판과 함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다른 종교와 문화에 배타적인 교회의 모습도 거론되면서 한국 사회로부터 교회는 외면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신뢰 상실의 문제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교회의 양적 성장과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지향하는 선교의 방향도 그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이 교회의 신뢰저하의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선교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새로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된다. 복음화와 선교의 열정이 교회의 양적성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위에서 구원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전환되도록 요청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교의 실마리를 에큐메니칼 선교에서 찾을 수 있다. 에큐메니칼 선교는 WCC를 중심으로 전개된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논의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지향하는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동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독교교육도 전통적인 선교의 맥락에서 기독교의 세력 확장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기독교 교육의 역할을 반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실천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서 시도했다. 바로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배타성과 공격적인

선교, 그리고 생명보다 교권체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 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고, 생명지향적인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선교교육의 방향성 확립이 요청된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선교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이 논문은 바로 기독교교육이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하여 세상을 섬기는 사명자들을 양성하는 선교교육으로서의 역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선교와 선교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담긴 에큐메니칼 문서들을 활용한다.

《 주제어 》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선교, 에큐메니칼 교육, 선교, 선교교육, WCC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 지 1년을 넘어 2년째를 향해가고 있다. 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맞이했고, 교회도 그 변화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필사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었고, 방역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교회가 지목되며 연일 대중매체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포 대상으로 비난을 받은 것은 신천지이다. 일반 대중은 신천지와 개신교 교회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모든 교회는 신천지와 동급으로 인식되면서 비판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이후 여러 교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개최된 광화문 시국 집회를 계기로 바이러스가 전파되자 교회에 대한 비난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생한 이후 올해 이루어진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여

론조사를 살펴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21%로 나타났고,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다는 의견은 무려 76%나 되었다. 이런 결과를 확인하고 연구소 측은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절망적인 목소리를 내 놓았다(양정우, 2021).

사실 이런 교회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비판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집단감염의 발생지로 교회가 지목되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교회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상실해 가고 있었고 비판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된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에 교회가 연루되면서 교회에게 가해진 비판 중 주목해야 할 것은 교회의 배타성과 교회이기주의이다. 특별히 일부 선교단체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의 허브로 지목되면서 기독교의 선교방식의 배타성에 대한 비판이 언론매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되었다. 그런 선교방식의 배타성은 고스란히 기독교의 종교이기주의로 표현되었고, 사회로부터 기독교에 가해지는 비판의 수위는 높아만 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교회의 절박한 과제이고, 이것은 바로 교회의 선교의 방향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로부터 교회가 외면당하는 이때에 기존의 방식대로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삼는 선교의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되기가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많은 자본을 획득하는 것이 성공인 것처럼 한국교회의 개교회 성장 역시 많은 교인을 끌어 모아 인적, 물적 자원을 축적하는 데에 집중해 왔는데(성호숙, 2018, 375),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 것이다.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는 이 시점에 복음을 절박하게 전하려 노력한다 해도 세상은 그 복음에 귀를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복음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선교활

동들이 복음화를 방해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교회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성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를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에는 다양한 것들이 논의될 수 있겠지만, 교회와 그 교회의 선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시선을 돌리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도록 돕는 것이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문제가 되었던 교회의 선교방식에 대해 성찰해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실마리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개 과정이 담긴 에큐메니칼 문서에 나타난 에큐메니칼 선교를 제시하려 한다.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선교의 사역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대안으로서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선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II. 선교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것은 예수의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예수의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 목표로 한다는 것을 드러낸다(이향명, 2013, 294).

선교는 이렇게 예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선교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20:21)라는 예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마제국에 의해서 오랫동안 고난과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는 로마제국으로부터 국교로 인정을 받고 제도화되면서 선교는 교회의 확장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1555년 로마가톨

릭과 개신교 사이의 종교 전쟁이 끝나고 아우구스부르크(Augusburg) 평화 협정의 체결에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지역마다 제 종교를 가진다”는 원칙에서 두 교회들의 확장 수단으로 선교가 변질된 것이다.

이러한 선교의 변질은 가톨릭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발견된다. 선교신학자 호켄다이크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확장의 도구로서의 전통적인 선교가 지닌 문제점을 제시한다(오인탁 외, 1984: Anderson, 1975에서 재인용).

> 첫째는 교회가 선교를 그의 확장의 도구로 하여 기독교 세계와 동일화됨으로서 소위 기독교 식민주의와 선교를 결합하는 안내역이 되었다는 것이다.
>
> 둘째는 이러한 선교에 따라 이교도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왜곡시켜 이방인을 미개인으로 하여 그들의 삶을 왜곡시켰다는 것이다.
>
> 셋째는 이 견해의 결과로 성서의 구원관을 왜곡시켜 구원이란 주정뱅이의 도덕재무장, 회개 같은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호켄다이크가 제시한 이러한 선교에 대한 문제제기는 바로 개신교 교회들도 교회의 강력한 교권체제 아래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미명하에 교회의 영향력을 세계 곳곳에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017년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1884년부터 1996년까지 원주민 강제동화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원주민 어린이들이 그들의 가정을 떠나 강제로 기숙학교에 보내졌고, 국제그렌펠협회와 모라비안 선교사 등 종교인이 설립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금지하는 행위를 행하는 등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그들에게 사과했다(강건택, 2017). 원주민들의 삶의 영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면서 그들에게 차별과 폭력을 자행했던 비극에 선교라는 미명하에서 기독교가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식민지화의 개척의 도구로서의 선교를 자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필요했고 이를 위하여 성서의 메시지의 왜곡을 시도할 필요가 있었다. 성서 전체에 흐르는 일관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해주시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에 희망을 두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식민지화에 연루된 제1세계 교회들은 이러한 성서의 구원관을 왜곡하였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허락하신 이 땅에서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인가가 아닌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며 현실도피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한 것이다. 타계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사상이 '기독교적 신앙'으로 자리 잡게 하였던 것이다(윤응진, 2000, 89).

이 밖에 선교가 교회의 확장수단으로 이용된 또 다른 문제도 나타났다. 18세기와 19세기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신앙부흥운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원으로 해외선교에 지원하는 등 세계선교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그 가운데 교회파송의 교파적 경쟁이 심화되었던 것이다(VanElderen, 1993, 17).

이처럼 18세기부터 19세기에 서구기독교에 의해 자행된 제3세계에서의 경쟁적인 선교가 과열되면서 지도자들은 선교가 가진 본질이 훼손되었음을 감지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의 교회가 모여 선교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선교대회가 1910년 영국의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다. 이곳에서는 과열된 선교 경쟁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에 대해서 논하며 선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지만, "우리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 하고 뜻을 모음으로써 복음전파라는 미명하에 교회의 확장을 시도하는 선교에 대한 이해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이후 선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를 중심으로 국제선교대회가 개최되고 그 가운데 선교

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전통적인 선교로부터 새로운 방향의 선교로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위한 선교의 유형은 한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에 기독교는 서구 선교사들에게 의해서 전파되었는데, 완전 다른 문화적 전통을 지닌 기독교를 한국 땅에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런 과정 속에 기독교의 전파를 위협으로 느끼는 지배자들에 의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였고, 순교자들은 신앙을 위해 목숨을 잃어야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의 근세사 가운데 외세의 침입에 따라 불안한 정서를 지닌 조선에서 근대화의 기초를 다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도록 하는데 기독교가 공헌을 하면서 기독교는 한국 땅에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은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는 고아원을 시작하고 그 곳을 현대식 교육을 전개하는 교육의 장으로 삼아 한국의 근대교육의 시대를 열었다(최수일, 2011, 220-221).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한국 교회에서 교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때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사용하기보다 민족 교육의 형태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의 사명은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하고 있었던 봉건적 지배계급의 타파, 구습과 폐습의 극복,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의 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다. 특별히 일제의 침략 아래서 주권을 상실한 한국의 교회들은 교육을 통해 나라를 일본으로부터 구하는 방향을 모색하였다(오인탁 외, 1984, 17-18). 북미의 선교사들로부터 시작된 교육운동은 교육을 통한 선교활동이 교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신앙부흥운동의 영향 아래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포교활동을 목표로 하여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들은 한일합방이 1910년에 이루어지자 정교분리의 선언을 한다. 그들은 복음전파를 통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한국 침략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이때 그들이 선교의 수단으로 삼은 어린이 교회학교의 교육은 순수한 교육적 의미보다는 “전도와 교회학장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 그때는 바로 전도로 인한 교회의 형성이 지상과제로 여겨졌던 것이다(정웅섭, 1991, 65-67).

이러한 흐름 아래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는 세계의 이데올로기 패권 경쟁의 가운데서 분단이라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는 권력들과 결탁하게 되었다. 친미적인 성향이 강한 지배세력과의 결탁으로 교세를 확장하는데 나섰고 미국의 근본주의 신학의 영향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였다. 이러한 신학적 영향 아래 한국교회는 이 세상보다 피안의 세계를 바라보도록 교인들을 독려했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는 이원론적 사고 아래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며 교세의 확장에 나섰다. 이런 분위기 아래 자연스럽게 타종교에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로 인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되기도 했다. 이러한 것들이 한국 교회를 나타내는 주요한 이미지로 각인 되면서 한국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공격적인 선교가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한국 교회가 외면당하는 이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끝임 없는 교회의 분열이 그 원인인데, 이 분열 가운데 교단과 교회들은 자교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역 확장에 몰두하는 것이다. 둘째, 교회와 세상을 양분하는 이원론적 구조도 또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 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데, 세상은 죄로부터 지배되는 공간이기에 세상에 있는 자들을 선한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사회의 부정의와 평화부재 상황을 교회는 외면하게 되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셋째, 물량적 교회성장을 추구하는 교회로 인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런 과정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맘모니즘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정당화하고 이러한 맘모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개신교는 타 종교에 대해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은 종종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위원회 편, 2008, 26-30).

그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들을 양성한다는 미명하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상주 BTJ 열방센터에서 집단 집회를 강행하고 그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특정집단 프로젝트의 산물이며, 전 세계 정부를 대통합해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주장한 인터콥의 선교를 들 수 있다. 인터콥은 그동안 세대주의 종말론과 공격적인 선교 방식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켜왔는데, 2014년 7월에 인도 불교사원에서 일어난 땅밟기 사건 같은 일을 행하기도 했다. 불교측은 타 종교를 배려하지 않는 이런 행동에 반발하였고, 이러한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자성의 필요성이 도출되기도 하였다(이승규, 2021).

이러한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은 일부 선교단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2013년 한국의 부산에서 WCC 총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오랜 역사동안 지속되어왔던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데 헌신하려는 운동을 주도하는 교회들의 협의회인 WCC가 다양한 종파와 다양한 종교들과 함께 인류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타종교를 인정하는 행위라고 일부 한국교회들은 비난하면서 WCC 총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움직임을 형성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배타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무리와 함께 기독교의 선교방식의 배타성과 무모함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이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선교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아래에서 다시 한국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성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절박한 문제는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에 대해 성찰하고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Ⅲ.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에큐메니칼 선교의 기여 가능성

위에서 제시한 한국 교회가 외면당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바로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으로부터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세상 끝까지 증거 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존중하면서 선교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김은수, 2001, 295)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세계교회는 교세 확장의 목적으로 선교에 매진하면서 선교의 본질을 상실하는 부작용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선교대회를 개최했으니 그것이 바로 1910년에 에딘버러(Edinburgh)에서 개최된 세계선교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이다. 이 대회 주제는 "우리 세대에 세계를 복음화하자"(the evangelization of the world in the generation)였다(Hunzinger, 2001, 27). 선교로 인한 교회의 분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교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열정은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선교의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이 교회의 분열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대회는 교회의 하나됨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하나 된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려 시도하며, '평화와 사회 정의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의 움직임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개로 연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에딘버리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선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선교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 1921년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설립되었다(Hunzinger, 2001, 27).

선교와 관련되어 중요한 전환점이 된 대회가 바로 1952년 독일의 빌링엔(Willingen)에서 개최된 4차 총회이다. 이 대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복음의 세계화를 통해 교회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는 전통적인 선교개념과 다른 관점에서 선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구원하시는 활동이 바로 선교라고 천명되었다. 교회는 단지 그 하나님의 구원 활동의 도구라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데, 이러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제안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여 교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전통적인 선교의 개념에 도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오인탁 외, 1984, 251-252).

선교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국제선교협의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을 전개하는 WCC와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WCC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선교'는 WCC를 중심으로 전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활동을 하시는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

님의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세계교회협의회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던 세계선교협의회는 1961년 WCC 3차 뉴델리총회 때 공식적으로 합류하였고, '하나님의 선교' 신학은 WCC의 공식신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에큐메니칼 진영은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기초한 선교활동들을 전개하게 되었다.

국제선교협의회가 WCC에 합류하기 이전 WCC 제1차 총회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혼돈의 상태에 있던 이 세계에서 복음이 세계 도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과제에 대해 논하기 전, 교회가 선교 사업을 행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의 외교정책과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의도를 증진시키는데 이용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였다. 또한 예배와 증거가 분리될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 교회의 선교 과제임을 확언했다(WCC, 1993, 41-49). WCC 제1차 총회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선교신학'이 공론화되고 그 신학이 WCC의 공식신학이 되기 이전이었으나 이미 전통적인 선교에 대해 성찰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맥락에서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동참하는 방식으로서의 선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WCC 제2차 총회에서는 제2분과에서 '복음전도'에 대해 다루는데 그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교회가 선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졌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구원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을 세상이라며 확인하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나누고 대화함으로 선교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다. 바로 이 세상이 분열되고 부정의가 만연함을 지적하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이러한 사회의 형태들과 집단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전도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이러한 복음전도를 세상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을 '평신도'라고 제시하면서 평신도의 복음전파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 한다(WCC, 1993, 100-106). 제2차 총회에서 세상을 선교의 중요 장으로 제시하고, 그 세상을 섬기는 평

신도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들은, 이 총회가 1952년 빌링엔에서 있었던 국제선교대회의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1961년 제3차 뉴델리 총회 때 국제선교협의회가 WCC에 합류하고 총회 제1분과에서 '증거'가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러하기에 교회의 복음전도의 과제가 절박하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며 주이시기에 그리스도를 증거 하여 세상을 밝힐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다. 이 총회는 하나 된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 증거의 본질이라고 밝히고 특별히 국적, 계층, 피부색, 종교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교회의 갱신과 증거의 출발점임을 제시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타종교인들과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과도 그리스도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음전파는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을 확인한다(WCC, 1993, 181-191). 제3차 총회에서는 '하나님 선교' 신학을 WCC의 공식신학으로 받아들인 총회이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이 요청되는 곳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구원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라는 맥락 속에서 선교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WCC 제4차 웁살라 총회에서는 제2분과에서 선교의 갱신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여기서는 선교는 타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는 다양하기에 선교의 장소도 다양하다고 이야기한다(WCC, 1993, 261-267).

WCC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특정 분과에서 선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제3분과 공동체 추구를 논의하는 분과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곳에서 강조된 것은 복음이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복음은 바로 다양한 가족, 신분제도, 계급, 정당, 국가, 종족, 문화, 남녀의 차이를 넘어서 모두를 새로운 공동체로 요청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

리의 신앙에 따라 복음을 전한다는 명분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류를 분열시키고 하나의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WCC, 1993, 351-352).

뱅쿠버에서 개최된 제6차 WCC 총회 제1분과에서 이 세계가 분열되었다고 진단하며 분열된 세계에서 어떻게 증거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여기서는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증거의 영역으로 어린이, 가난한 자들, 타종교 사람들을 제시한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부정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한 복음의 증인인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가난을 야기하는 구조들의 변화를 위해 일함으로써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ill, 1983, 35-41).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대상자들의 삶을 파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뱅쿠버 총회는 이런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과제로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을 제시하는데, 이로부터 이 세 가지 주제는 선교의 방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7차 WCC 캔버라 총회에서는 선교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선교를 수행하는 기독교공동체의 방향성에 대해 지적한다. 분열된 세계를 새롭게 된 피조물로 형성하는 것이 교회선교의 목적임을 제시하면서, 그 선교는 '그리스도의 방법'인 나눔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문화 가운데 성육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선교는 회개와 치유가 필요함을 지적한다(WCC, 1993, 524-525). 바로 다양한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침략주의적 선교를 강행했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요청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하라레에서 개최된 제8차 총회에서는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선교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교의 진정한 방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에 대해 성찰하며, 그 지역의 문화를 고려하고 복음

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여전히 인종차별주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배제, 세계화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파괴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의 화해와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긴급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Wilken, 1999, 84-85). 여전히 고유한 문화를 고려하지 않은 개종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세계화로 인해 제3세계가 고통 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선교를 전개해야 하는 지에 대한 세계교회의 문제제기를 담고 있다.

WCC 제9차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는 다원화된 문화와 배경 속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증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Rivera-Pagn, 2015, 142). 이것은 다원화사회에서 다른 문화와 종교와 대화하는 것이 인류의 공존을 위해 요청되는 과제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대화를 나눌 때 기독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요청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제9차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이후 2012년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는 에큐메니칼 선교 확언을 시도했고, 2012년 WCC 중앙위원회는 새로운 선교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것은 변화하고 있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선교와 전도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 비전과 개념과 방향을 찾기 위한 시도였다. 이 성명서의 주제는 “함께 생명을 향하여”였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자, 구속자, 유지자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oikoumene)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기 위해 세상에서 일하신다고 확언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생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만물 가운데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 관심이며 선교(요 10:10)라고 천명한다.

2012년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는 이에 따라 선교의 본질이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지구공동체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임을 주장한다(WCC, 2013,

78-79).

제10차 WCC 부산총회에서는 선교성명서가 채택되었는데, 이 성명서는 세계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선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곳에서 제기된 선교에 대한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장상, 2014, 311-314).

첫째,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지리적 확장의 선교개념에서 벗어날 것, 둘째, '주변부를 향한 선교'에서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로 패러다임의 전환할 것, 셋째, 전통적 선교활동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성찰할 것, 넷째, 중심부로의 선교를 거부하고, '주변부로부터의 선교'를 제안할 것, 다섯째, '교회의 존재목적'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성취하는데 있다는 것, 여섯째, 개종활동은 정당한 전도방법이 아니라는 것, 일곱째, 복음주의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신학적 성찰과 공동의 증언을 추구할 것, 여덟째, 변화하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상황화된 선교 방법을 모색할 것, 아홉째, 하나님은 선교사보다 앞서 선교지에 가 계신다는 것.

이러한 제안들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세계교회에서 논의되었던 선교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선교'에 집중하였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논의된 에큐메니칼 선교의 방향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선교를 행하고 집단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한국 교회의 선교의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제기하는 이러한 선교의 노선과 복음주의의 선교 노선 사이에 갈등도 존재하였다. 갈등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이 갈등이 선교를 가로막지는 못한다. 선교는 교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인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는 서로 다른 입장에 매몰되는 것에서 벗어서 대화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과제가 요청된

다. 그리고 선교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만을 향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요청이기도 하다.

Ⅳ.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선교교육

1.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논의된 선교교육

18세기와 19세기에 이루어진 선교교육을 손윤탁은 첫째 경건주의 운동을 통한 영적 부흥과 관련된 선교교육, 둘째 선교회를 통한 선교 운동으로 선교사들을 위한 모금 운동과 관련된 선교 확산과 선교 잡지를 통한 선교교육, 셋째 19세기의 선교운동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대학들의 선교교육(손윤탁, 2010, 143)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선교 교육은 복음의 전파에 대한 열정으로 전개되었으나 교회의 확장과 식민지화를 위한 전통적인 선교의 방향을 돕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에딘버리 선교대회가 전통적 선교에 대한 문제제기로 개최되어 선교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루었지만, 제3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선교교육의 성격이 전도의 한 형태로서의 교육, 교회를 위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의 교육,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전히 교육을 전도의 도구로 보고 있음이 드러난다(손윤탁, 2010, 152).

이러한 교회 확장의 도구서의 선교 교육이 새로운 방향성을 지니기 시작한 것은 WCC가 설립되고 W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서이다. WCC의 총회 가운데 가장 먼저 선교교육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은 제2차 총회이다. 이곳에서는 복음화의 주요 영역으로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기독교적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다(Hooft, 1955, 103). 아직 교육의 방향이 젊은 세대들의 기독교인화를 통해 교회의

양적 확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려는 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동시에 1952년 세계선교협의회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선교'의 영향으로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참여하는 평신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일과 삶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Hooft, 1955, 169-170). 전통 선교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교육이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4차 WCC 웁살라 총회에서 선교를 위한 평신도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이 교회조직 내부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이 다양한 역할로 세상을 섬기도록 신학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중요 과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WCC, 1993, 208). 이러한 주장은 교육은 교회체제를 위해 평신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WCC 총회에서 처음으로 교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제5차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기독교교육이 교회의 모든 신도들의 책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회공동체가 교육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그 가운데 선교훈련에 대한 특별학습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삶과 유리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WCC, 1993, 369-379), 이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동참하는 것이 선교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신도들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이어 진행된 WCC 제6차도 총회 안에서 교육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데 이 총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과제로 제시된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JPIC)'이 제시됨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활동에 동참하는 교육적 과제로 JPIC가 거론된다(WCC, 1993, 485-486).

특별히 WCC의 조직인 교육 분과는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을 위한 학습'을 중요 교육 사업으로 인식하고 'JPIC'에 관한 교회들의 교육적 경험을 수집하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서 많은

웍샵들을 진행하며 교회들의 교육활동에서 JPIC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Best, 1990, 201). 이는 선교교육의 주요 주제로서 세계교회에서 JPIC가 다루어지게 된 것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삶 가운데서 생존의 문제로서 직면하고 있는 JPIC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로 연구 분석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세계 교회들이 교육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한 것이다.

WCC 제8차 총회에서는 에큐메니칼에 동참한다면 일방적인 개종을 강요하는 선교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존중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청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했다(Wilkens, 1999, 82). 여전히 종교와 문화적 충돌로 인류의 공존이 위협당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는 시점에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서로 다름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선교교육의 과제로 강조된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교육의 방향들이 제시되긴 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이 상세하게 체계화되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한 교육의 학문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에큐메니칼 학습론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1985년 독일교회협의회(Evangelische Kriche in Deutschland)가 발행한 에큐메니칼 학습(Okumenisches Lernen: Grundlagen und Impluse-Eine Arbeitshilfe)은 교회와 세상의 분열이 아닌 교회와 세상의 일치를 주장하고, 서로 다른 교파와 문화 사이의 상황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 가운데 세상과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에큐메니칼 학습의 과제로 제시하였다(EKD, 1985, 16).

또한 고쓰만은 에큐메니칼 학습의 동기에 '선교적' 동기가 있음을 지시하면서, 다른 문화와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Piepel, 1993, 197). 다른 문화와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대화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의 문제라는 것을 드러내며 이를 가능하게 할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에큐메니칼 학습론의 중요한 흐름이 되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가 고립되고, 더 나아가 교회가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모습을 지니는 것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활동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생명지향적인 구체적 실천에 나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시도로서 에큐메니칼 학습이 제시된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선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에큐메니칼 신학에 기초한 선교교육은 교회의 전통을 계승하고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에 동참하도록 돕는 교육을 제시하고, 이것이 온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한 선교교육은 일부 전문 선교사들을 양육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평신도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돕는 것임을 명확히 한다.

2.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선교교육의 방향

예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하지만 이때 복음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은 로마시대 억압당하고 있는 유대인에게 로마가 아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샬롬이 완성된 나라에 대한 소식이다. 이런 점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

쁜 소식을 증거 하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의 양적 확장과 교권체제의 강화를 위해 증거 되는 것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음 선포와 선교에 대해 방향전환의 요청이 에큐메니칼 운동 가운데 있었고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 선교'이다.

선교교육도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행하여졌다.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교교육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기독교가 외면을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선교교육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큐메니칼 선교와 이에 기초하여 전개된 에큐메니칼 교육이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선교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교교육은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올바로 제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선교의 주체가 교회로 인식되었고, 그 교회는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선교를 행하였다. 하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서 구원활동을 행하시는 것의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서의 교회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정당성을 변증하기 보다는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와 긍휼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고(고수진, 2015, 281),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정의와 평화의 모습을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는 교회의 교육적 사명에 따라 교회의 정체성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섬기는 것이 사명임을 교육해야 한다. 케리그마, 레이투르기아.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다케로 나타나는 교회의 모든 교육커리큘럼이 바로 이러한 선교의 방향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오늘의 상황에서 '타자를 위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형성할 필요성을 교육하고 함께 변화하는 선교의 상황을 감지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탐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선교교육은 세상의 중요성을 올바로 제시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세상은 악한 곳, 교회는 선한 곳으로 교육하곤 하였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고 세상의 타자들과 소통하지 않으며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대상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터전이다. 이 세상(oikoumene)을 '거주할 수 없는 땅'이 아닌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중요한 사명이다. 지역과 교회에 갇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만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디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오현선, 2013, 66).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민족, 종교, 인종, 성별의 차이를 넘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다. 특별히 세상의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자들에서 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선교교육이 요청된다.

또한 '하나님의 선교'의 장으로서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요청된다. 선교의 장인 세상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선교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돕는 것도 선교교육의 과제인 것이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함께 이 문제들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셋째, 선교교육은 전문 선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평신도를 위한 교육도 되어야 한다. 한국 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선교교육은 대부분 해외에 나가 선교를 담당할 전문선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에 머물러있다. 교회가 섬겨야 할 대상이 개교회와 지역교회를 넘어서 온 세상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기에 국경

을 넘어서 지구 공동체의 이웃들을 섬기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사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평신도들이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을 드러냄으로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도록 평신도의 사명과 그들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평신도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다른 종교와 문화를 가진 이웃과 대화하고 소통함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 이 땅을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드는데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교육 또한 필요하다. 평신도들이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선교교육의 주제로 채택하고 이 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성서는 이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함께 탐구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방향을 깨닫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선교교육의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된다.

넷째, 선교교육은 교회의 확장이 목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에큐메니칼 선교는 이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땅'이 아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선교이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선교교육은 이 땅을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는데 헌신해야한다. 이 땅에 인간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거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선교교육은 생명을 위협하는 부정의, 평화부재,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요소들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생명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런 요소들에 저항함으로 생명 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선교교육이 이루어질 때 선교교육은 교회 확장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활동의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Ⅴ. 나가는 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한국교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나도록 했다. 사회로부터 쏟아지는 교회에 대한 공격들이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성찰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려했다. 그래서 선교라는 미명하에 약한 사람을 탄압하고 때론 다른 종교를 가진 이들에게 독선적이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분열을 야기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과 결탁하거나 그런 문제들 앞에 침묵하기도 했다. 이런 교회의 어두운 모습이 드러나면서 교회는 신뢰를 잃어갔다.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은 현시점에서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더 이상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문제점들을 밝히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의 선교의 방향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교회의 신뢰회복이 선교와 선교교육의 방향 전환의 목표는 아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에 함께 한다면, 한국 교회의 신뢰는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에큐메니칼 선교는 교회의 본질을 밝히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를 둔 선교교육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훈련시킬 수 있다.

이 논문은 에큐메니칼 선교에 기초한 선교교육의 방향만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개발은 시급한 과제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강건택 (2017. 11. 27). 부끄러운 역사…원주민 학대에 눈물 흘리며 사과한 캐나 다 총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71127052700009?input=1195m

[Kang. K. T. (2017. 11. 27). A shameful history…canadian prime minister apologizes in tears for abuse of indigenous peoples. Yunhapnews]

고수진 (2015). 이타적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교육목회. **기독교교육논총, 42,** 271-296.

[Ko. S. J. (2015). Educational ministry to recover altruistic commu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271-296.]

김은수 (2001). **현대 선교의 흐름과 주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Kim, E. S. (2001). *The flow and theme of modern miss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에큐메니칼 위원회(편) (2008). **21세기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Ecumenical committee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2008). *Ecumenical Movement of Korean Churches in the 21st Century.*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성호숙 (2018). 교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기독교 인성교육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6,** 369-402.

[Sung. H. S. (2018). A study on the Christian personality educ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rust in the church. *Journal of Education in Korea, 56,* 369-402.]

손윤탁 (2010).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와 선교교육. **선교신학, 24,** 135-164.

[Son. Y. T. (2010). Edinburgh world missionary conference and mission education. *The Theology of Mission, 24.* 135-164.]

양정우 (2021. 1. 29). '코로나19'로 교회 신뢰도 급락…1년 만에 32%→21%.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9151300005?input=1195m

[Yang. J. Y. (2021. 1. 29). Sudden drop of church credibility with ‘COVID-19’… 32%→21% in one years. Yunhapnews]

오인탁 외 (1984). **기독교교육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Oh, I. K . (Ed). (1984). *The theory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Association of Korean Christian.]

오현선 (2013).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신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36,** 65-91.

[Oh. H. S. (2013). A task and vision of ecumenical theological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6,* 65-91.]

윤응진 (2000). 새 밀레니엄과 기독교교육의 사명. **기독교교육논총, 6,** 85-114.

[Yun. Y. J. (2000). New millennium and the mission of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 85-114.]

이승규 (2021. 1. 21). 불교사원 땅밟기 인터콥, 물의 때마다 '모르쇠'.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80411

[Lee. S. K. (2021. 1. 21). Intercop treading on the ground of a buddhist temple, NoCutnews]

이향명 (2007). 하나님나라 운동과 기독교교육 - 에큐메니칼 운동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14,** 291-317.

[Lee. H. M. (2007) Bewegung des reichs Gottes und relionserziehung in der ökumenischen bewegung,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4,* 291-317.

장상(편) (2014).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백서. 서울: WCC 제10차 총회 백서발간위원회.

[Jang. S. (Ed). (2014). World council of churches 10th assembly. Seoul: 2014 korean Host Committee for the WCC 10th Assembly.]

정웅섭 (1991). **현대기독교교육의 과제와 방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Jung. W. S. (1991). *Tasks and methods of contemporary Christian education.*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최수일 (2011). **간추린 기독교선교역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Choi. S. I. (2011). *Brief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Seoul: Yeyoung Communication.]

Best, T. F. (Ed.). (1990). *Vancouver to canberra 1983-1990 report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to the seventh assembly.*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EKD. (Ed.). (1985), Ö*kumenisches lernen: Grundlagen und impulse.* Gütersloher: Gütersloher Verlagshaus.

Gill, D. (Ed.). (1983). *Gathered for life.* Geneva: World Council of Churches.

Hooft, W. A. V. (Ed.). (1955). *The evanston report: The second assembly of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954.* London: SCM Press LTD.

Hunzinger, C. D. (2001). *Ökumene erfahren und leben.* Gütersloher: Gütersloher Verlagshaus.

Klaus, W. (Ed.). (1999). *Gemeinsam auf dem weg. Offiziell bericht der achten vollversammelung des* ö*kumenischen rates der kirchen harare 1998.* Frankfurt am Main: Lembeck.

Piepel, K. (1993). *Lerngemeinschaft weltkirche. Lernprozesse in partnerschaften zwischen Christian der ersten und der dritten* welt. Aachen: Misereor.

Rivera-Pagn, L. N. (Ed.). (2015).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서원모 역.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원저 2007 출판)

[Rivera-Pagn, L. N. (Ed.). (2015). *God, in your grace* (Y. M. Seo. Trans). Seoul: Publishing House of Presbyterian University of Theological Seminary.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VanElderen, M. (1993). **세계교회협의회 40년사.**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88 출판)

[VanElderen, M. (1993). And so set up sings…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first 40 years(H. K. Rhee. Trans).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WCC(편). (1990). **역대총회종합보고서.** 이형기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WCC(편). (2013). **자료모음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Geneva: WCC publications.

[WCC. (Ed). (1993). *Data collection: World council of churches 10th assembly.* Geneva: WCC publications.]

Abstract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ission Education Based on Ecumenical Mission

Eun Joo Lee

Adjunct Professor, Hanshin University

Due to COVID-19, the entire world is facing the unprecedented phenomenon. Amid the threat of the virus, the global community is struggling for life. In such circumstances, churches in Korea have been criticised as selfish groups threatening the community by spreading the virus. With such criticism, they are disregarded by Korean society because their immorality and exclusive attitude towards other religions and cultures were also mentioned in public. There are many reasons for Korean churches to lose trust from people. One of the reasons for that is the quantitative growth of church and expansion of the power of church, which is a direction that has been practised so far as a missionary goal. The zeal for spreading gospel has undermined the trust of church and become a deteriorating factor for mission, which is irony. In such problematic situations, the change of paradigm is required for new mission. The passion for evangelisation should not only focus on the quantitative growth of church; it should change its direction for serving the world in lieu with the plan of God for the activity of redemption on this land. A hint of such mission can be found in ecumenical mission. Ecumenical mission is a new paradigm which was discussed in ecumenical movement led mainly by WCC, and its aim is to participate in activities of redemption of God for life in this world. Christian education has been a tool for the expansion of Christian power in the context of traditional mission. Reflecting on the role of Christian education as

such, the change of direction as practical movement for the kingdom of God was tried in ecumenical movement: the beginning of the discussion of Christian education based on ecumenical mission. Due to exclusivity, aggressive mission, and the excessive attention to the system of ecclesiastical authority rather than life, Korean churches, which have lost trust in this society, should recover themselves as the model of the kingdom of God, and the establishment of mission education based on ecumenical mission is required for them to become a community towards life. Furthermore, this is an urgent task for Korean churches to implement such mission education in a church community.

《 Keywords 》

Mission, Ecumenical movement, Ecumenical mission, WCC, Missionary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5월 12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6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6월 28일